테마칼럼 | 여성세계 | 정치브리핑 | 경제의 눈 | 문화 향기

최연희 의원과 사생활

김신명숙
〈작가〉

아직도 낡고 차별적인 공사구분에 의지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최연희 의원은 하루 빨리 의원직을 내놓고 집에 가서 '애 보는 일'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

"개인적인 일로 공적인 일이 소홀하게 되면 안되니까 나왔다"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올 3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모습을 감췄던 최연희 의원이 지난 14일 여의도 정가에 공식적으로 나타나 한 말이다. 그는 이 날 강원도 도정협의회에 국회의원협의회장의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개인적인 일이라니? 그럼 지난 3월의 대국민 사과는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그는 강제추행죄로 법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대국민 사과를 했고 현재 형사 재판정에 서 있다는 사실은 그가 저지른 일이 국가의 형벌 여부를 물어야 할 만큼 우리사회의 공공질서에 해가 되는 일임을 말해준다. 강원도 도정협의회만 공적인 일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도 공적인 일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린 최의원은 이어 이런 멘트도 날렸다.

성추행 사건이 개인적인 일?

"오늘 일이 중요한 문제니까 나왔다"

그러니까 도정협의회는 '중요한 문제'고 성추행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암시인데 이는 그가 구사한 '개인적인 일'이라는 표현과 상통한다. 요약하자면 성추행 문제는 '개인적인 일이므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발언이다. 이른바 '공선사후'의 가치관이다.

앞서 말했듯 성추행 문제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다. 만약 그가 불법 정치자금이나 다른 비리로 사건을 일으켰다면 절대로 '개인적인 일' 운운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추행 문제라는 이유로 그의 잘못된 발언에는 한 점의 주저도 없었다. 게다가 그의 발언을 문제 삼은 언론도 없었던 것같다. 우리 사회 다수가 그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성추행 문제가 개인적인 일로 쉽게 치부되는 것은 그것이 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사생활이란 말은 흔히 '성생활'로 이해되고 '배꼽 아래 일'은 개인적인 일이므로 불문에 부쳐져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그 '배꼽 아래 일'에서 여성들은 몸이 상품이 되어 매매되고 강간이나 추행을 당하며 성적 대상이나 노리개가 되는 굴욕을 견뎌야 한다. 성이야말로 여남간의 권력관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여성의 인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하는 장인 것이다. 이를 통찰한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다.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바로 성의 정치학이다. 근대사회는 세상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한 후 전자는 남성에게, 후자는 여성에게 할당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의한 문제들, 즉 성폭력, 가정폭력, 남성중심적 가족관계, 양육의 여성전담 등의 문제들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공론의 장에서 추방해 왔다. 이같은 맥락에서 '공선사후'는 '남선여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이같은 차별적 공사구분의 경계를 해체시키려는 도전이면서 사적인 문제도 공적인 문제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가치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의 도정협의회처럼 성추행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저출산 문제도 육아 문제를 사적인 일로 치부해 무시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자들에게 '집에 가서 애나 보라'는 말이 최대의 치욕으로 여겨져왔던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집단적 맞대응이기도 하다.

아직도 낡고 차별적인 공사구분에 의지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최연희 의원은 하루 빨리 의원직을 내놓고 집에 가서 '애 보는 일'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 육아문제가 도정을 협의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 도정의 주요 과제임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개인적인 일'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신이 처신이 '공직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조 영 추

여름휴가는 책을 읽는 즐거움으로

태풍 '에위니아'(Ewiniar)가 휩쓸고 간 자리에 장마전선이 자리 잡고 연일 폭우를 뿌리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지속될 즈음엔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바다와 산을 찾아 떠난다.

일상을 떠나는 휴가, 이 귀중한 시간이 더욱 즐겁도록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러, 자녀와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몇 권 골라 휴가 가방에 넣어가서, 해가 지는 바닷가에서 혹은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 계곡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는 당신의 모습, 너무나 멋진 풍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침 독서의 열풍이 불고 있고, 이에 뒤질세라 우리 나라의 많은 학교에서도 아침 독서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창의력이 높고,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달 평균 독서량은 1.3권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 13.2권, 서울 15.3권, 대전 15.1권이며, 광주는 14.9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UN에서 조사한 평균 독서량 국가별 순위의 166위에 위치해 있어, 정보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흔히 시간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책은 긴 시간을 내기보다는 짧은 시간을 틈틈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 전임 대통령은 책 읽는 것을, 자투리 잠과 비교했다. 그것은 평소 좋아하는 책을 눈에 보이는 위치에 두고 짧은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자주 들춰보는 지혜로운 습관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용 안에 예쁜 천으로 포장된 화장지나 인형은 구비해 놓으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책 한 권 조차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제부터라도 읽고 싶은 책을 차에 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펼쳐보는 습관을 기르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평소 부모가 스스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책을 읽는 동기와 습관을 길러줄 수 있고,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서 즐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우리 도서관은 여름 방학을 맞아 독서지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일주일 동안 숲과 나무의 날, 자연 동시의 날, 야생동물의 날, 어머니 대지의 날 등의 테마를 정해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우리는 작은 시작으로 '책을 읽는 새로운 여름휴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겠다.

〈광주시립도서관장〉

독자마당

대형쇼핑점 주차장 CCTV 사각지대 많다

지난 토요일 시내 대형 쇼핑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쇼핑을 마치고 와 보니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이 다른 차량에 들이 받혀 푹 들어가 있었다.

카트 담당 직원에게 사정 얘기를 했더니 주차장 발생 사고는 CCTV로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쇼핑점측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CCTV를 보면서 확인 했지만 하필 CCTV 사각지대여서 사고 현장이 담겨있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옆차 주인을 방송으로 불러 물어봤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차 상태를 보니 내 차를 들이 받은 것 같지 않아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 달라는 방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방송용 멘트를 작성해야 한다며 한참 있어도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방송용 멘트를 잘못할 경우 윗사람에게 문책을 당한다고 해 기다렸는데 20여분이 지나도 방송이 나오지 않아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손상됐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하고 설치한 CCTV도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안내 방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쇼핑센터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

앞으로는 이 쇼핑점을 이용할 때는 쇼핑 중간 중간에 잠깐 나와서 차의 상태를 확인해야겠다.

▲양창숙·광주시 남구 구소동

실내수영장 청정공기 유지 기준 정해야

얼마전 외신을 통해 수영장에서 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가 어린이들의 호흡기 계통을 손상시켜 천식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됐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물에 녹아있던 염소가 증발하면서 호흡을 통해 어린이의 폐에 들어가면서 폐벽의 보호점막을 해치고 유해물질에 쉽게 감염되도록 작용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주 수영장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폐 보호점막이 아주 많이 손상됐다는 증거까지 내놨다.

수영장은 잘 알다시피 사방이 밀폐돼있다. 그리고 외부와 햇볕이 차단돼 실내공기가 탁할뿐 아니라 항시 습도가 아주 높고 환기도 안되다보니 실내 수영장의 공기층은 최악이 아닐까.

우리나라도 자체 연구와 측정을 해보고 그것이 정말 해로운지 판단을 내려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한다.

또 실내수영장의 환기와 청정공기 유지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다.

▲홍명호·광주시 서구 풍암동

공중목욕탕 기본적인 에티켓 안지켜서야

대중목욕탕에서 탕 속에 들어가기 전 얼굴 및 온몸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 에티켓으로 알고 있다.

이 상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옷을 벗자마자 탕 속으로 들어간 뒤 손·발을 비롯, 심지어 머리까지 씻는가 하면 때를 미는 사람들도 많다.

입장을 바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 탕 속에 들어가고 싶을까.

어른들조차 그런데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무례함이 지나치면 옆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안겨준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대중탕 이용 예절을 지켰으면 한다.

목욕탕측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백재승·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택시 기사 금연 왜 안지키나

최근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냥 내리려다가 손님이 탔으니 알아서 꺼줄 것으로 믿고 올라탔는데, 기사는 여전히 담배를 피워댔고 담배 연기는 내게 다 오는 것 같았다.

참다못해 "저기, 담배좀 그만 꺼주시죠."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다 와 가는데요 뭐"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아 기분이 상했다.

단순히 택시 기사 개인 문제로 넘겨버릴 수는 없다. 택시 회사의 기사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니까 일어나는 일이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해야 하는 기사들의 스트레스와 애로 사항도 이해를 하지만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잘못됐다.

기사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한다.

▲김진순·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 설

박 시장·지역 국회의원 소모전 중단하라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은 20일 박광태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현실화되고 만 것이다.

박 시장과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정치력이 이 정도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광주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들이다. 아무리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도 5·31 지방선거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야 되겠는가.

당선이 지상목표인 선거판에서 어느 정도의 감정싸움은 불가피할 수 있다. 곳곳에서 고소·고발이 잇따랐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로 취하하는 것이 정치권의 상례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앙금을 풀지 못한 채 고소 사태로 번진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광주시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추진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문화수도 특별법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고 혁신도시 건설과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로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현실에서 소모적 싸움만 계속해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당을 초월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주문이다.

박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정쟁을 법정으로 끌고 간 사태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선 4기를 막 시작한 박 시장도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야하는 상황 자체가 바람직할 수는 없다. 모두 선거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을 의식하길 바란다.

구멍뚫린 재난관리체계 人災 피할 수 없다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운용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재난 관련 시설이나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비가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 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체 23종의 관리대상 시설물 가운데 14개 시설물은 아예 자료 입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입력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체 방재 시설물의 34.3%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있으며 그나마 시설물별 피해 규모 등 필수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적지않았다. 특히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148개 지구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설의 경우 고장이 잦거나 뒤늦게 발령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재난 관리를 책임지는 소방방재청의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일진대 나머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는 얼마나 허술할 것인가. 지난 주말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 폭우도 이런 허점투성이의 재난관리체계가 피해를 키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천재(天災)보다는 인재(人災)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변화로 재해 빈도가 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예측이 어려운 게릴라성 폭우도 늘고 있다. 허술한 재난관리체계로는 그 위력과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자연 재해를 예방하기는커녕 피해만 키울 수밖에 없다. 매년 되풀이는 태풍과 홍수피해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으레 들먹이는 '천재지변'이니 '불가항력의 기상이변'이니 하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국가차원에서 재난방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때다.

無 等 鼓

코카콜라

일본 나고야를 여행할 때 눈길을 끄는 것은 기차역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네온사인이다. 무게 46t의 강철과 940m의 튜브, 1천879개의 전구로 만든 이 네온사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옥외광고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자본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코카콜라의 '힘'을 보여주는 광고다.

브랜드 파워 조사업체인 '인터브랜드'(www.interbrand.co.kr)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2001년 이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는 무려 676억 달러로 삼성전자(125억 달러)의 다섯 배가 넘는다. 연간 생산량은 360억 병, 200여 국가에서 하루 10억 잔이 팔리고 있다.

미국의 J.S. 펨버튼이 코카 잎·콜라 열매·카페인을 주원료로 탄산음료를 만든 게 1886년. 이후 코카콜라는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는 원액(原液)의 비밀, 여자친구의 주름치마에서 영감(靈感)을 얻었다는 컨투어(contour) 병, 빨간 옷에 흰 수염을 한 산타클로스의 유래, 뉴코크(New Coke)의 실패 등등…온갖 신화와 전설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코크 제국(帝國)'은 지난 1999년 '이물질 유입 사건'으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 두통과 구토를 유발시킨 원인은 순간 밀봉시 '결함 있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캔 살균처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벨기에·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코크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그 코카콜라가 지금 광주·전남에서 독극물 파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 초기 늑장 대응이나, 변명에 급급하는 행태는 7년 전과 유사하다. 범인 진술에만 의존, 일부 지역에 깔린 제품만 리콜하는 모양새도 볼썽사납다.

콘스턴스 헤이스는 '코카콜라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코카콜라가) 소비자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펩시에 추월당했다'고 분석했다.

이윤에 집착하는, 기업 논리의 전형을 코카콜라에서 본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FAX 222-4267〉 사회2부 2200-619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FAX 222-8005〉 광고국 2200-521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사업2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